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이라크

Republic of Iraq

2019년7월4일 | 책임조사역(G3) 김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42천 km <sup>2</sup> 	<b>인구</b> 39.9백만명 (2018)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친이란 
<b>GDP</b> 2,261억 달러 (2018) 	<b>1인당GDP</b> 2,572 달러 (2018) 	<b>통화단위</b> Iraqi Dinar (ID) 	<b>환율(\$기준)</b> 1,190.00 (2018평균)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음.
- 전 국민의 90% 이상인 이슬람교도가 시아파(65%)와 수니파(35%)로 나뉘어 종파 간 분쟁과 부족 간 갈등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낮음. 한편,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북부 3개 주(州)를 관할하고 있음.
- 두 차례의 전쟁과 UN 경제제재, IS와의 내전 등의 여파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발달이 저조하며, 풍부한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과거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일원이었으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제명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IS(이슬람국가)의 침공에 이어 여타 수니파 극단주의 군사조직의 테러 공격이 계속되는 등 종파 갈등에 기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7. 9 수교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후 1980. 10. 10 단교)

**주요협정**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83년), 항공협정(85년), 문화협정(85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1,439,620	1,461,632	1,911,537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
수입	5,036,216	6,371,009	9,569,140	원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7건, 376,951천 달러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투자실적은 2018년 말(누계기준) 신규법인 수 총 17건, 3억 7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의 투자실적은 2016년 9백만 달러(신규법인 없음), 2017년 6백만 달러(신규법인 없음), 2018년 5백만 달러(신규법인 1건)로 감소 추세임.

### 교역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수출 품목은 현지 수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기계류와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며, 대 이라크 수입 품목은 주로 원유임.
-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수출규모는 자동차, 기계류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 전년(14.6억 달러) 대비 4.5억 달러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함.
-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유가가 상승하여 수입금액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임.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sup>
경제성장률	0.7	2.5	13.6	-1.7	0.6
소비자물가상승률	2.2	1.4	0.5	0.1	0.4
재정수지/GDP	-5.6	-12.8	-14.3	-1.6	6.2

자료: IMF, EU

### 국제유가 상승, 안보상황 개선 등으로 2018년 플러스 경제성장률 회복

-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석유 부문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Oil Market Report에 의하면,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2013년 308만 배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47만 배럴, 2018년 457만 배럴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는 467만 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산유국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OPEC Plus의 감산 합의에 따르면 이라크는 2019년 1월부터 6개월 간 일일 14만 배럴을 감산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적정 일일 원유생산량은 451만 2천 배럴이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역시 상한선을 다소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유지해 오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제재 강도 완화(한국 등 8개 수입국에 대해 180일간 제재 면제), 미국,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2018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연말 배럴당 50달러 초반대까지 급락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OPEC 감산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였음.

< 최근 3년 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두바이유 선물거래가격 추이 >



자료: NYMEX(조회일자: 2019.7.4)

## 국내경제

-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의 내전 후 유증 및 여타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소비도 위축되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18년에는 IS와의 내전 종료로 안보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 0.6%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IMF는 2019년에는 인프라 투자 등 비석유 부문 성장과 더불어 2019년 중반 OPEC Plus 감산기간 종료 후 석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2.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4개 OPEC 회원국은 총 80만 배럴/일을,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 10개국은 40만 배럴/일을 감산 중이며,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향후 9개월 간 감산 연장에 합의하면서 IMF의 2019년 이라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IMF는 2019년 4월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2019 자문 회의에서 이라크의 비석유 부문은 파괴된 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재건에 투자가 집중되어 2019년 5.4%의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음.

### IS와의 내전 종료에 따른 전쟁비용 지출 해소로 2018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

-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지속과 전쟁비용 지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5년 -12.8%로 전년(-5.6%)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4.3%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IMF 대기성차관 도입 조건으로 긴축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산유국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원유수출량도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6%로 현저히 개선됨.
- 2018년에는 IS와의 내전 종료로 전쟁비용 지출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가 GDP 대비 6.2% 흑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9년에는 각종 재건사업 등의 본격 추진으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5.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이라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출은 1,126억 달러로 전년(881억 달러)에 비해 28% 확대된 규모이며 총 세입은 배럴당 원유가격 56달러, 일일 원유수출량 388만 배럴을 가정한 893억 달러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정부 예산안 비교 >

예산안 항목	2018년	2019년
총 세출	881억 달러	1,126억 달러
총 세입	775억 달러	893억 달러
- 배럴당 원유가격	46 달러	56 달러
- 일일 원유수출량	390만 배럴	388만 배럴
적자 규모	106억 달러	233억 달러

자료: 이라크 정부 예산안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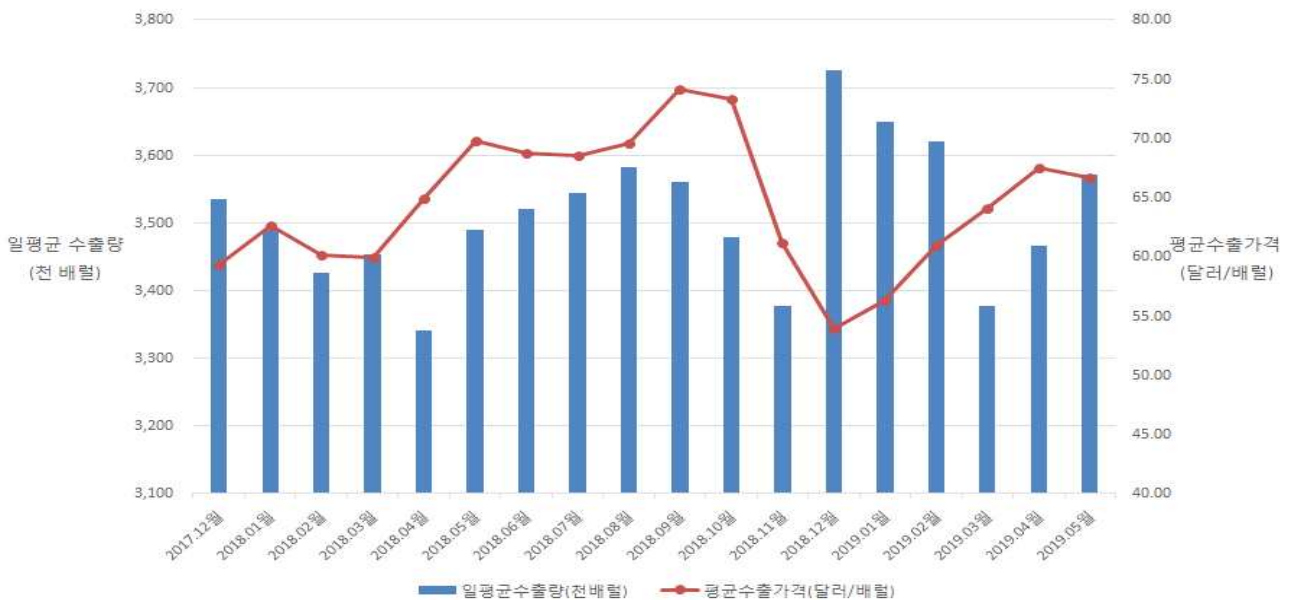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e</sup>
경 상 수 지	15,856	-2,762	2,158	14,892	35,270
경상수지/GDP	6.8	-1.6	1.3	7.7	15.6
상 품 수 지	35,558	10,990	12,221	25,374	48,384
상 품 수 출	85,370	51,337	41,298	57,559	87,260
상 품 수 입	49,812	40,347	29,077	32,186	38,876
외 환 보 유 액	61,824	50,600	41,581	45,152	60,188
총 외 채	58,110	66,086	64,961	69,722	74,964
총외채잔액/GDP	24.8	37.2	38.1	36.0	33.2
D.S.R.	2.4	3.3	13.6	6.8	3.2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상승, 원유수출량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출액은 2016년 413억 달러에서 2018년 873억 달러로 크게 개선되어 201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5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이라크 일평균 수출량 및 평균수출가격 월간 추이 >



- 자료: 이라크 석유부

## 외채상환능력

###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 등으로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비중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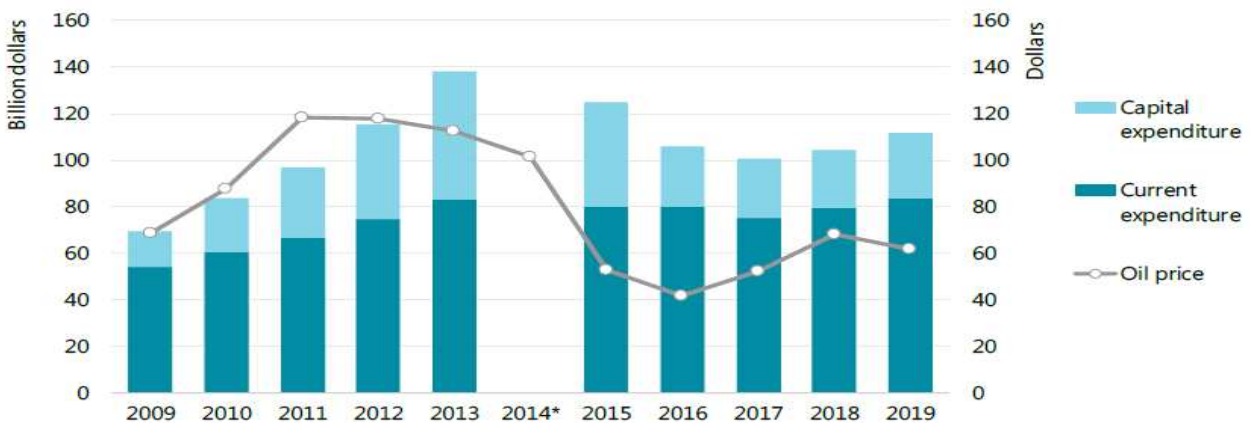
- 2016년 7월 IMF는 저유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라크와 향후 3년간 53.4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약정을 승인한 바 있고 2017년 국채 발행으로 외채잔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 다만 경상GDP(미 달러 환산)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1월 미국 정부의 100% 보증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이라크 정부 단독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
- D.S.R 또한 2016년 13.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2018년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원유수출 수입(收入)증가하면서 2016년 416억 달러에서 2018년 60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구조적취약성

### 석유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석유 부문이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이라크 연방정부 예산안 상 정부지출은 유가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저유가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GDP 대비 -14.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2016년 7월 IMF로부터 향후 3년간 53.4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도입한 바 있음.

< 유가와 정부 예산안 상 정부지출 추이 >



자료: IEA 이라크 에너지 부문 보고서 (2019. 4월)

\* 2014년은 IS와의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예산안이 존재하지 않음.

### 천연가스 자원 개발 미흡 및 전력난 심각

- 석유 생산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의 생산량도 증가하였으나, 저장소, 정제시설 등의 부족으로 천연가스의 포획과 처리 능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IEA의 이라크 에너지 부문 보고서(2019. 4월)에 따르면 이라크의 가스 소각량은 2012년 연간 약 120억 입방미터에서 2018년 약 160억 입방미터로 늘어 현재 이라크에서 추출되는 가스의 절반 이상\*이 소각되고 있음. 이라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인접한 이란으로부터 전력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임.
- \* BP Statistical Review of Energy 2019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의 1018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은 130억 입방미터임.
-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과 이후 15년 간 계속된 내전으로 발전·송전 시설이 크게 손실되었으며, 이라크 정부의 고질적인 부패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음.
-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5일 이란산 금과 원유에 대한 수출금지를 포함한 2차 대(對)이란 제재를 발표하였음. 당시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이 180일 간 한시적 면제조치를 적용받은 바 있음.
- 현재는 사실상 유일하게 이라크만이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고, 지난해 11월(향후 45일간), 12월(향후 90일간), 올해 3월(향후 90일간), 6월(향후 120일간) 총 4차례 제재 면제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비석유 부문 발전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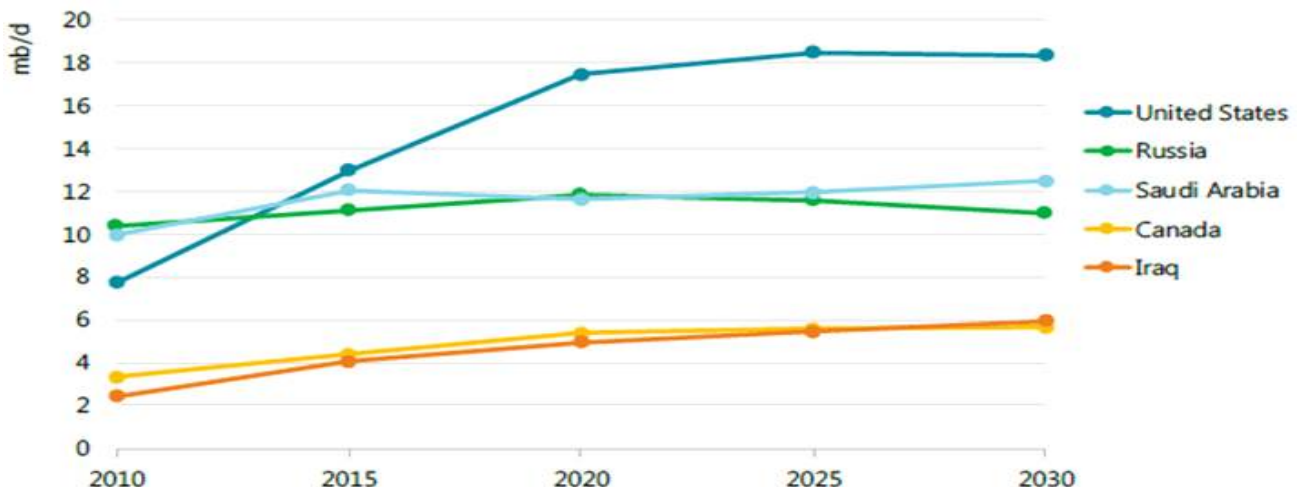
-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에 IS 등의 테러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이라크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비석유 부문의 활성화보다 정부 재정수입의 즉각적인 원천이 되어주는 석유 부문에 더욱 주력하여, 아직까지 비석유 부문의 발전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
- 이라크 정부는 역내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비석유 부문의 개발을 국가경제 발전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의 지속으로 인해 비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성장잠재력

###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는 2018년 말 원유 1,472억 배럴(세계 5위, 중동 3위), 천연가스 3.6조 m<sup>3</sup>(세계 12위, 중동 5위)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임.
- IEA의 이라크 에너지 부문 보고서(2019. 4월)에 따르면, 이라크는 지난 10년 동안 일일 원유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렸으며, 향후 2030년에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대 산유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함.
- IEA는 2030년까지 이라크의 일일 원유생산량이 1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만, 원유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외에 투자 유치 및 정치적 안정 유지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함.

< 주요 산유국의 일일 원유생산량 전망 >



자료: IEA 이라크 에너지 부문 보고서 (2019. 4월)

## 성장잠재력

### 주요 파이프라인 보수 및 신설로 원유 수송 네트워크 다양화

- 이라크 석유부의 2019년 5월 원유수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원유 수출물량은 357.2만 배럴임. 그중 344.1만 배럴은 이라크 남부 Basra항을 통해, 10.2만 배럴은 터키 Ceyhan항을 통해 수출되어 약 96%의 수출물량이 Basra항에 집중되어 있음.
- 이라크의 Basra항을 출발한 수출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바,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란이 동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라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음.
- 2019년 6월 이라크 정부는 원활한 원유 수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irkuk-Ceyhan(터키) 간, Basra-Aqaba(요르단) 간 파이프라인 보수 및 신규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음.
- 기존의 Kirkuk-Ceyhan 파이프라인은 2014년 IS가 Nineveh주를 점령함에 따라 이용이 중단되었고 Basra-Aqaba 파이프라인은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이용이 중단된 바 있음.
- 기존의 Kirkuk-Ceyhan 파이프라인 일부를 보수하고 Nineveh주로부터 수백 km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Basra-Aqaba 파이프라인은 일 1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송출을 위해 송유관을 증설할 예정임.

## 정책성과

###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

-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이라크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71위로 전년(190개국 중 168위)보다 3계단 하락하여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부문별로는 창업(Starting a business: 155위), 계약분쟁 해결(Resolving insolvency: 168위), 무역통관(Trading across borders: 181위) 및 자금조달(Getting credit: 186위) 부문의 순위가 특히 낮게 나타났음.
-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테러 지속,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 각종 장애 요인들로 인해 제도 개혁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성과 부진

- 이라크 정부와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이라크의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 물이 되고 있으며, 이는 종파 및 부족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구조의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있음.
- IS 격퇴전이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데는 뇌물을 제공하고 병영을 이탈하는 등 군대 내 부정 부패의 만연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로 초래된 이라크 정부군의 기강 해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 정치인 수당 축소, 유령 노동자 임금 축소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이라크 정부의 정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성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이라크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168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정치동향

### 2018년 5월 총선 결과 군소정파들 난립

- 2018년 5월 12일 치러진 이라크 총선 결과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인 Muqtada al-Sadr(1973년생)가 이끄는 정파인 Saairun Alliance(행군자동맹)가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총 328석 중 54석으로 과반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함.
- 한편, 현역 국회의원 Hadi al-Amiri가 이끄는 Fatah Alliance(정복동맹)는 47석을 획득하였으며, 미국의 후원을 받는 Haider al-Abadi 총리가 이끄는 Victory Alliance(승리동맹)는 42석 획득에 그침.

< 2018년 총선 결과에 따른 이라크 의회 의석(총 329석) 분포 >



\* 기타: 10석 미만의 28개 정파로 구성

- 의회 내 의석 수 1,2위 정파들인 Saairun Alliance(행군자동맹)과 Fatah Alliance(정복동맹)는 같은 시아파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행군자동맹은 반미-반이란-이라크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정복동맹은 반미-친이란-이슬람주의를 표방하여 이란과의 관계에서 상호 대립하고 있음.
- 특히 내무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정복동맹이 후보로 추천한 친이란 민병대 지도자 출신 Falih Fayadh의 임명 동의를 행군자동맹이 계속 거부하고, 그럼에도 정복동맹은 Falih Fayadh의 내무장관 임명 추천을 계속 고집하여 교착 상태가 지속된 바 있음.

## 정치동향

### 총선 이후 5개월 만에 마흐디 총리가 취임하였으나 내각 구성 관련 난항

- 2018년 5월 12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여 재개표를 거치는 등 교착 상태를 지속하다 10월 2일 이라크 의회는 쿠르드계 중도성향 정치인 바르함 살리(59세)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살리 대통령은 신임 총리로 시아파인 아델 압둘 마흐디(77세)를 지명하고 이라크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25일 아델 압둘 마흐디가 총리직에 취임하였음.
- 의원내각제인 이라크에서는 통상 의회 의장은 수니파, 실권을 쥐고 있는 총리는 시아파, 명목상의 국가 정상인 대통령은 쿠르드계가 각각 맡고 있음.
- 총리는 취임 이후 30일 내에 내각을 구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 각 정파의 규모가 작고 다수여서 내각 구성을 어렵게 만들어 22명의 장관직 중 14명만이 초기 임명 동의안을 통과하였음.
- 친미와 반미, 친이란과 반이란, 시아파와 수니파,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정교 분리를 내세우는 세속주의와 종교에 기반한 통치를 주장하는 이슬람주의, 원유자원이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등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태임.
- 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는 중에 마흐디 총리는 공석이던 4개의 장관직 후보를 제출하였고, 의회는 그 중 3명의 장관직을 승인하면서 마흐디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인 6월 24일에 각 장관직에 취임함.
- Najah Hassan al-Shamari는 국방장관, Yassin al-Yasiri는 내무장관, Farouq Amin Shwani는 법무장관으로 각각 취임하였으나, 교육장관 후보자만이 임명에 필요한 찬성표 획득에 실패하면서 유일한 공석 상태로 남게 됨.

## 정치동향

### 쿠르드자치정부의 분리 독립 움직임은 무산되었지만 갈등요소 존재

- 이라크의 최대 소수민족(약 5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으로 오랫동안 독립 투쟁을 벌여온 쿠르드족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2006년 1월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자치정부(KRG)를 수립하여 아르빌, 다후크, 술라이마니아 3개 주를 자치지역으로 관할하고 있음.
- 쿠르드족은 터키 남동부(45%), 이란 북서부(24%), 이라크 북부(18%) 및 시리아 북부(6%)에 걸쳐 분포해 있음. 총 인구는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약 3,000만 명으로 추정되어,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한 전 세계의 민족들 중 최대 규모임.

< 쿠르드족 분포도 >



- KRG는 2017년 9월 5일, 관할지역인 3개 주에 키르쿠크 주와 니네베 주의 쿠르드계 주민들까지 포함시켜 쿠르드 민족국가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10월 16일 이라크 정부군이 KRG의 관할 하에 있던 키르쿠크 유전지대와 그 일대를 장악하여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라크 대법원이 주민투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KRG의 독립 움직임이 무산된 바 있음.
- 터키, 이란, 시리아 등 인접국들은 자국내 쿠르드계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 독립을 선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쿠르드족 국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여 KRG의 독립 움직임에 반대해 왔음.
- 이라크 정부의 2019 예산법에 따르면 KRG는 중앙정부로 일일 25만 배럴의 원유를 송출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원유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은 것으로 파악되며, KRG 측에서는 원유 송출 의무 이행 전에 쿠르드 지역 내 석유회사들이 부담해 온 기존 부채의 해결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정치동향

- KRG는 2014년부터 터키의 Ceyhan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에 독자적으로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대해 자바르 알 루아비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KRG의 독자적 석유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2018년 5월 제기한 바 있으나, 2019년 연방 예산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KRG 내 공무원의 임금 및 금융 혜택 제공 대가로 KRG는 일일 25만 배럴을 연방 수출에 기부하기로 합의하였음.
- KRG의 분리 독립 움직임은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유전인 키르쿠크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영토 통제가 중앙정부에서 KRG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왔기 때문임.
-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키르쿠크 주에서 아랍계와 쿠르드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방화, 테러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KRG 의회는 중앙정부와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 140조\* 시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등 향후 중앙정부와 KRG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라크 헌법 140조에 따르면 분쟁지역 대상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KRG 중 원하는 통치주체를 선택할 수 있으나, 키르쿠크 지역이 다시 KRG 통제를 받을지는 의문임.

< 이라크 내 원유 및 천연가스 주요 분포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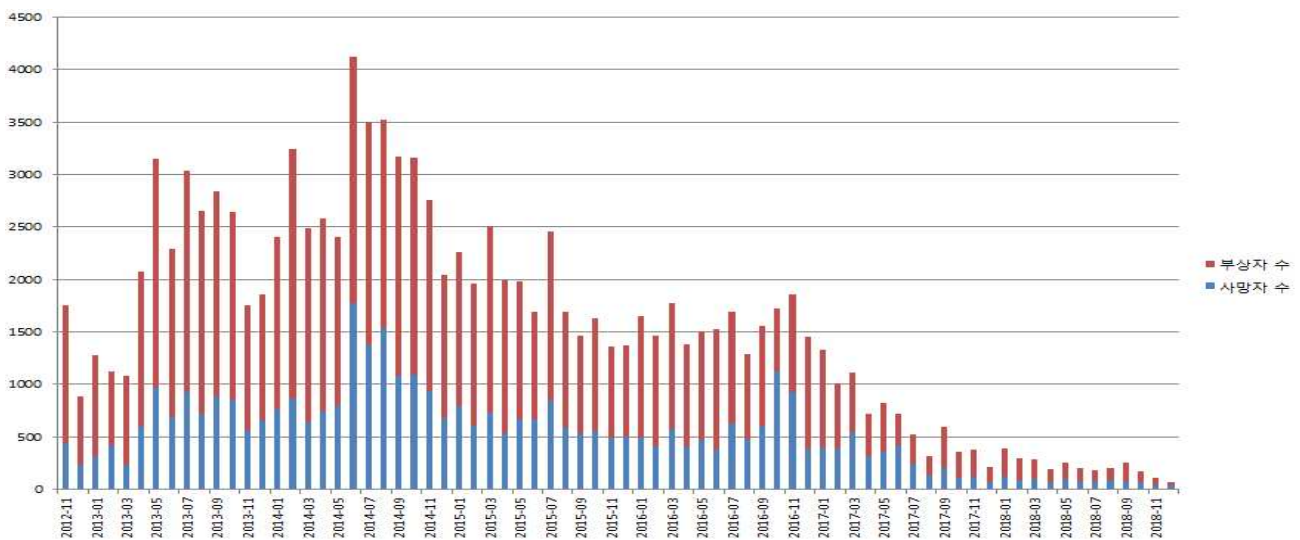
자료: IEA 이라크 에너지 부문 보고서 (2019. 4월)

## 사회동향

### IS와의 내전 종료 후 치안상황이 개선되면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줄었으나, 치안·무장인력의 사상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

- UN 자료에 따르면 테러 등에 의한 이라크의 월간 민간인 사상자 수는 이라크군이 IS와의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여 2018년 12월 기준 총 64명의 사상자를 기록하였음.
- IS 잔당들은 함린과 카라초크 산맥의 은신처를 활용해 디얄라, 키르쿠크, 니나와, 살라헤딘 등에서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의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폭발물) 공격은 대부분 연방 경찰, 육군 부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인 사상자 외에 치안·무장인력의 사상자도 함께 발표하고 있는 Antiwar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5월 민간인 사상자 수 201명, 치안·무장인력의 사상자 수 227명 등 전체 사상자 수 428명으로 여전히 많은 사상자 수를 기록하고 있음.

< 테러 등에 의한 이라크의 월간 민간인 사상자 추이 >



자료: United Nations Iraq

### 전력난, 식수난, 실업난, 부정부패로 인한 반정부 시위 지속

-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 Basra 주민들은 Basra 지역 유전에서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음에도 전기, 식수와 같은 열악한 공공서비스, 부정부패, 실업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수년 간 항의해 왔음.
- 2018년 7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바스라 주 정부 청사 및 바스라 주재 이란 총영사관 방화\* 등이 이어졌고 시위를 진압하려는 군경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작년 말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올해 6월에 같은 시위가 재발되었음.
- \* 이란은 이라크 남부에 전기를 수출해오다 7월 대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일시 중단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위대는 이란이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에 종속적인 이라크 정부를 비판하였음.

## 국제관계

### 미국-이란 간 갈등으로 인해 중동 정세에서 이라크의 중요성 부각

-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피격,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석유 펌프장 피격, 미국 무인기 격추 등 일련의 사건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여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접국인 이라크 바그다드의 그린존(외국 대사관 및 정부건물 밀집 지역), 바그다드 북쪽 미군 주둔지, 이라크 북부 모술에 위치한 미군 기지, 글로벌 석유기업이 위치한 이라크 남부 바스라 유전지대에 로켓포 공격이 이어지고 있음.
- 이라크 내 친이란 조직에 의한 미국 시설, 군 기지 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라크 주재 非필수업무를 맡은 자국 공무원에 철수령을 내리고, 미국 석유메이저인 ExxonMobil도 현지 직원들을 대피시킴.
-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깊어지자 종교적, 정치적, 지리적으로 이란과 가깝고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이라크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이라크에 영향력이 가장 큰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이라크가 그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함.
- 미국은 중동 정세에 이라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6월 15일 이라크의 이란산 전력, 가스수입에 대한 제재 예외적용을 120일 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라크와의 대립은 회피하고 있음.

### 이란, 정치·종교·무역 등에서 이라크와 가장 밀접한 관계

- 이란은 이라크와 레바논(시아파가 다수), 시리아(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정권 장악), 예멘(시아파가 다수)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여 수니파의 맹주국이자 역내 최대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코자 시도하고 있음.
- 인구의 다수(약 65%)를 차지하면서도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 치하에서 탄압을 받아온 시아파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의 정권을 장악하고,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란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도 이라크는 이란으로부터 전력과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으며, 이란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유전을 함께 개발하여 아자데간, 야란 유전 등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이란의 점유율은 낮아질 전망이며, 이라크는 그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음. 터키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유예 연장 중단으로 이라크 Basra 항구를 통한 원유수입을 확대할 전망이며, 터키의 Ceyhan과 이라크 남부 Basra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복구하여 원유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임.



## 국제관계

###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벨트 형성을 저지코자 이라크와의 협력관계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1990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국교를 단절하였으나, 이후 IS에 의한 테러리즘이 중동 지역 내 공적으로 부상하여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어 2016년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재개되었음.
-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정계에 의해 이란과 이라크가 밀착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이라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양국의 정상은 무역, 에너지, 정치 부문 등에서의 합의서 12건과 양해각서 1건에 서명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였고, 이라크 내 다용도 종합경기장 등 '스포츠 도시'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하였음.

### 터키, 쿠르드노동자당(PKK) 소탕을 위한 이라크 역내 군사작전 수행으로 갈등 지속

- 터키군은 2015년 말부터 이라크 정부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모술 북동부의 바시카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KRG의 군사조직인 페쉬메르가와 反IS 민병대 조직의 군사훈련 및 무장을 담당하였음.
- 또한, 터키군은 자국의 쿠르드족 반정부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이라크 영토 내 유입을 소탕한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포격하는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터키는 지난 2017년 KRG 관할 3개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자국 내 쿠르드족의 봉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개입코자 이라크 내 자국 군대의 주둔을 지속하고 있음..
-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 중에 있는 이라크 영토에 무단으로 주둔하며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에 대해 6월 14일 마흐디 총리는 이라크 내 허가받지 않은 모든 군사작전을 막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등으로부터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이라크는 파리클럽의 330억 달러 채무탕감(2004년 11월 합의)을 필두로 러시아 120억 달러(2008년), UAE 70억 달러(2008년), 중국 68억 달러(2010년) 등의 대규모 채무탕감이 성사되었음.
- 이라크의 채무탕감에는 채무불이행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이라크 전쟁에 책임이 있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라크는 현재까지 파리클럽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무탕감을 받은 국가들 중 하나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금액 대폭 감소

- OECD에 의하면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이라크 앞 여신 잔액 55.8억 달러 중 43.3억 달러를 연체하였으나,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여신 잔액 56.5억 달러 중 36.0억 달러를 연체하면서 1년 만에 약 7억 달러의 연체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56.5억 달러의 전체 여신 잔액 중 약 64%를 연체하고 있어 연체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19.01)	7등급(2018.01)
S & P	B- (2015.09)	
Moody's	Caa1(2017.08)	Caa1(2017.08)
Fitch	B-(2015.08)	

### OECD는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3사도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19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2019년 1월 평가회의에서 이라크의 정량점수 등급은 IS와의 내전 이후 경제지표 개선으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었으나, 최종등급은 정치·사회 불안정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았음.
- S&P는 B-등급, Moody's는 Caa1등급, Fitch는 B-등급을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junk)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 등급(OECD 등급 환산시 7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의 이라크 앞 지원태도 :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 이라크 정부가 IS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IS 잔당을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의 테러 공격 지속, 총선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싼 잡음, 총리 선출 이후 내각구성 난항 등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주요국 ECA(수출신용기관)들은 이라크 관련 거래에 대한 지원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고 있음.
- 미국 US EXIM은 이라크에 대해 공공 부문의 경우 7년 이하 중·단기 거래 지원만 가능하며, 민간 부문은 2015년 11월부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5월 말 기준 미국 US EXIM의 이라크 앞 익스포저는 없으며, 이라크 공기업 앞 중·단기 거래 지원을 위해 이라크 재무부와 MOU를 체결(2018.2.13자)한 이후에도 지원실적이 없는 상태임.
- 프랑스 Bpifrance Assurance Export는 2017~2019년 모두 이라크에 대해 '조건부 위험인수'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모든 종류의 수입자에 대해 인수 가능하나, 여신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프랑스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례별로 이라크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보증도 요구할 수 있음.
- 영국 UKEF는 이라크에 대해 '별도 협의'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위험인수 여부를 검토함.
- 이라크는 'Care on Location(프로젝트 위치 주의)' 대상으로 프로젝트 지원 여부 검토시 프로젝트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결정함.
- 한편 UKEF는 2019년 4월 이라크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추가 지원을 위해 이라크에 대한 위험 익스포저 한도를 기존 10억 파운드에서 20억 파운드로 증액하였으며, 증액분(10억 파운드)의 경우 대정부 거래(sovvereign transactions only)에만 활용함.
- UKEF는 2019년 2월 30.2백만 유로 규모의 이라크 Al Mussaib 발전소 정비계약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7년 영국과 이라크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MOU 체결에 의한 후속 조치임.
- 독일 Euler Hermes는 이라크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가능하나, 이라크 재무부 보증을 요구하되 건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위험을 인수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이라크 재무부의 보증을 요구하되, 단기의 경우 사례별로 이라크 은행 발행 L/C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 노르웨이 GIEK은 이라크에 대해 단기보증은 사례별로 취급 가능하나, 장기보증은 인수 불가하다는 입장임.

## 국제시장평가

- 일본의 경우 JBIC은 이라크 관련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NEXI는 2년 이하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수 중단, 2년 이상 상품의 경우 사안별로 심사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임.
- 2017년 3월 JBIC과 NEXI 두 기관의 협조응자로 이라크 정부 앞 변전설비 구입자금 지원에 대해 JBIC이 103억 엔 규모의 대출을, NEXI는 상업은행분 193백만 달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였음.
- 2018년 3월 NEXI는 이토추 상사의 이라크 Shell Iraq BV(Royal Dutch Shell의 자회사) 인수건과 관련 투자보증을 인수하였으며 보증인수액은 330백만 달러, 부보기간은 12년임.

- 이라크는 2018년 말 기준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90년 UN 경제제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 IS 등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치안불안의 와중에서 투자가 석유 부문에 더욱 집중되어 비석유 부문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임.
- 2018년에는 IS와의 내전 종료로 안보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0.6%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며, IS와의 내전 종료로 인한 전쟁비용 지출 해소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6.2%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5월 12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여 재개표를 거치는 진통 끝에 5개월 만에 마흐디 총리가 취임하였으나, 정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내각 구성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고 현재는 22개의 장관직 중 교육장관직만이 공석 상태임.
- IS와의 내전 이후 치안상황이 개선되면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줄고 있으나 IS 잔당들의 공격에 의한 치안·무장인력의 사상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작년 7월 전력난, 식수난, 실업난, 부정부패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같은 시위가 재발되고 있음.